

# Daily Auto Check

2022. 9. 8 (Thu)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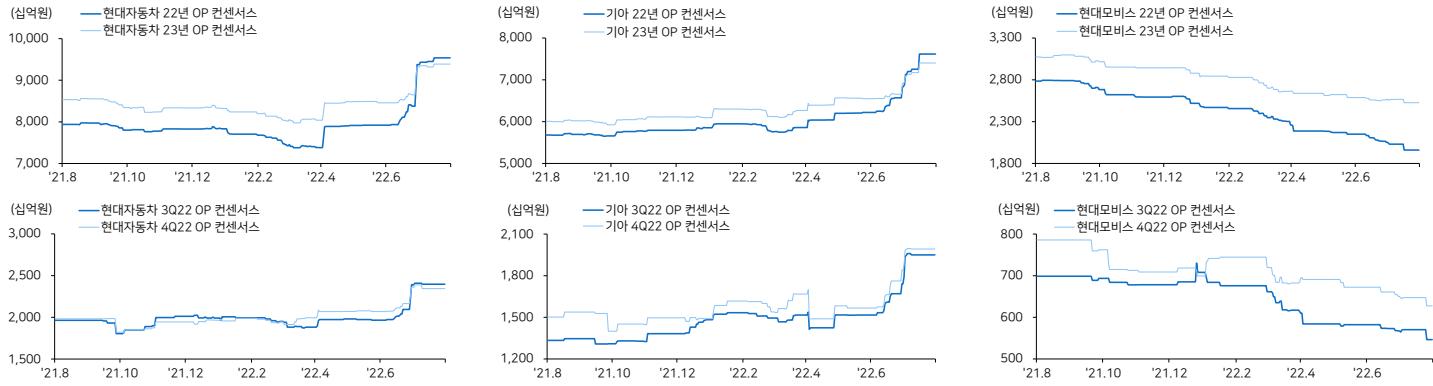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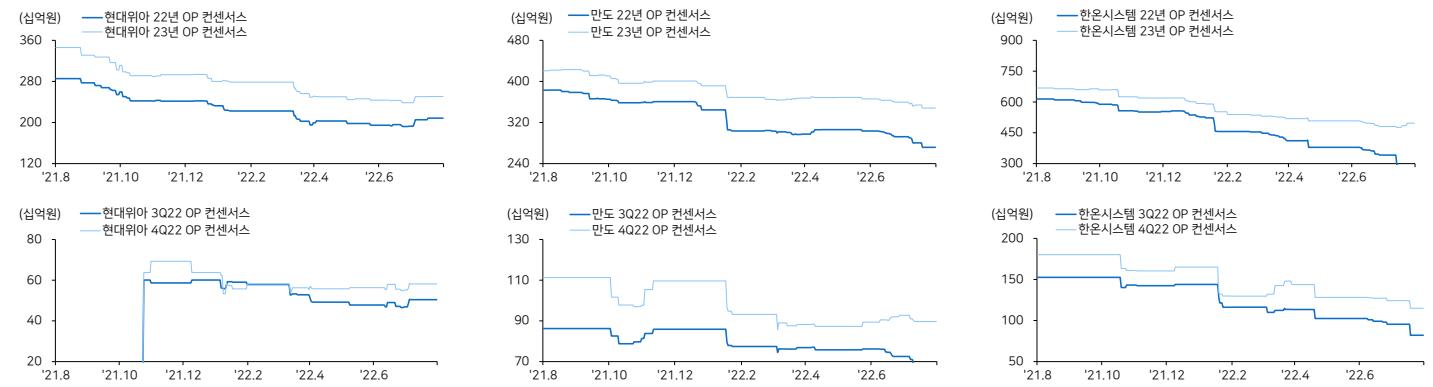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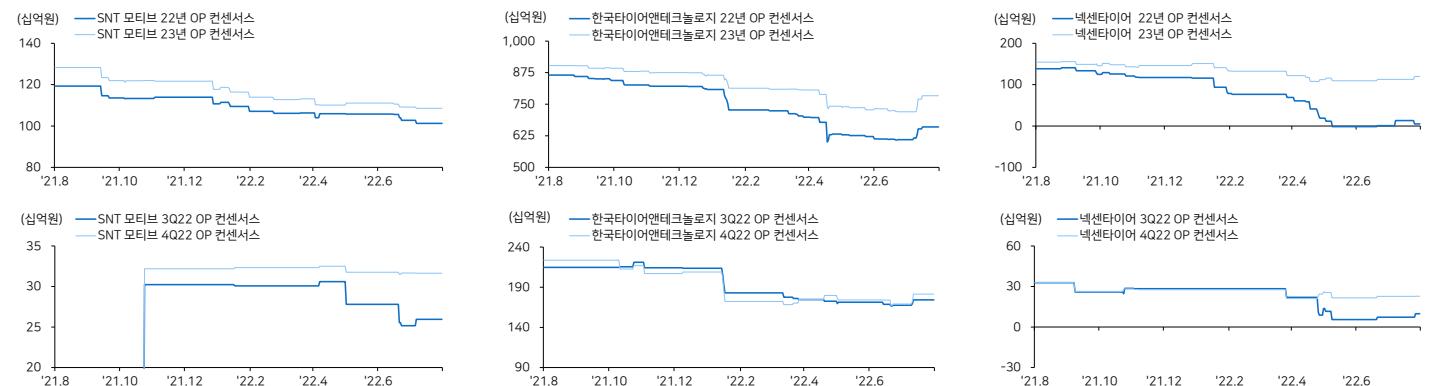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한미, '전기차 차별' 별도합의체 구성... "최대한 많은 대안 논의" (연합뉴스)

한미 양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협의 체널을 구성하기로 합의, 협의 체널 구성 및 구체적인 논의의 의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키로 함.

<https://bit.ly/3B0tNvq>

## "세계 차시장 위축에도 전기차는 '쑥쑥'...韓 수출 4위" (뉴시스)

최근 금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수출 세계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의 전기차 수출 규모는 2년 만에 11위에서 3위로 약간, 수출额 1위는 독일, 2위는 미국으로 나타남.

<https://bit.ly/3evPxn>

## Canadian gov confirms talk with Tesla and other automakers about a factory (electrek)

캐나다 정부는 테슬라 및 타 완성차 업체들과 전기차 공장 건립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테슬라는 캐나다에 공장을 건설하기 원하며 타 완성차업체와도 논의 중'이라고 언급.

<https://bit.ly/3D1Gqhs>

## Piedmont Lithium CEO says not enough lithium to meet U.S. demand by 2030 or 2035 (Teslarati)

Piedmont Lithium의 CEO인 Kieth Phillips는 최근 인터뷰에서 2030년 이전에는 미국의 리튬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공급이 부족하다고 언급. 또한 리튬 수급을 위한 '진짜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

<https://bit.ly/3TUor1V>

## 현대차-KT 지분 맞교환... 자율주행 협력 급가속 (한국일보)

현대차와 KT는 KT의 자사주 7.7%(약 7,500억 원)를 현대차 지분 1.04%(약 4,456억 원), 현대모비스 지분 1.46%(약 3,003억)와 맞교환. 자율주행에 필요한 6세대 이동통신 규격을 양 사가 공동 개발, 실증사업 공동 진행 예정.

<https://bit.ly/3OnAKRC>

## 전기차 대기 줄이려... 현대차·제네시스, 중복 계약 막는다 (조선비즈)

현대차와 제네시스가 잇따라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는 가운데 출고 대기가 길어지자 현대차가 중복 계약을 정리하고 나선. 장기간 대기가 이어지고 출고 시점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

<https://bit.ly/3AVP7a6>

## Tesla cuts waiting time for Model 3, Model Y deliveries in China (Reuters)

테슬라 중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Model 3, Model Y 대기시간을 최대 14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남. Model Y 풀레인지의 경우 기존의 16~20주 대기기간이 10~14주 수준으로 줄어는 것.

<https://reut.rs/3BljR5v>

## China's NEV sales expected to exceed 10 million in 2023, analysts say (CNEV Post)

Essence Securities는 중국의 NEV 판매가 2022년 662만대, 2023년 1,036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23년 기준, BEV는 699만대, PHEV는 337만대를 예상. BYD를 비롯해 NIO, XPeng, Geely 등의 공급이 증가할 것.

<https://bit.ly/3L22WbG>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